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다양한 게임 장르와 플랫폼을 갖췄다. 하스스톤의 신규 확장팩 '운고로'를 향한 여정(위)과 오버워치의 신규 영웅 캐릭터 '오리사'를 선보이며 인기게임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제공 |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하스스톤·히어로즈 오브 더 스톼·오버워치…

‘블리자드의 성공신화’ 네버엔딩 스토리

RPG·RTS에 카드·슈팅까지 장르 개척 PC·모바일·콘솔 아우른 플랫폼 다각화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팬 행사도 강화

‘스타크래프트’와 ‘디아블로’, ‘워크래프트’ 등 전설적인 게임을 제작한 개발 명가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장르와 플랫폼 다각화에도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러 플랫폼에서 즐길 수 있는 디지털 카드 게임 ‘하스스톤’, 블리자드 세계관의 영웅을 한데 모은 온라인 팀전 게임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톼’, 팀 기반 슈팅 게임 장르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 ‘오버워치’ 등 특정 장르와 플랫폼에 묶여 있지 않은 게임업계의 거인임을 입증했다. PC와 모바일, 콘솔을 아우르는 한편 역할수행게임(RPG), 실시간전략시뮬레이션(RTS) 등 특정 장르를 넘어 진지점령전(MOBA), 카드, 슈팅 등 새로운 장르에서도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블리자드는 올 상반기 인기 게임들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게이머들의 마음을

홀칠 준비를 마쳤다. 주요 시장 중 하나인 한국에서도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하스스톤은 신규 확장팩인 ‘운고로’를 향한 여정’을 다음 달 출시한다. 총 135장의 새 카드가 등장할 예정이다. 게이머들은 고대의 정령과 섬뜩한 식물, 아제로스를 호령하던 위협적인 포식자들을 만나볼 수 있다. 출시 전까지 예정된 1회에 한해 운고로를 향한 여정 카드 팩 50개 묶음 상품을 5만 배틀코인(PC기준)으로 예약 구매할 수 있다. 예약 구매자들에게는 운고로를 향한 여정에 어울리는 테마의 카드 뒷면이 주어진다.

5월 출시 1년을 맞는 오버워치는 신규 콘텐츠 출시로 장기적 성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엔 신규 영웅 ‘오리사’를 적용했다. 24번째 영웅인 오리사는 4족 보행 로봇 돌격 영웅이다. 팀을 보호하는 다양한 방어 기술을 통해 전투의 중심점 역할을 한다.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톼은 최근 지속적인 콘텐트 업데이트와 이벤트로 새로운 게임으로 재탄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발라라, 루시우에 이어 시공의 폭풍에 새롭게 등장한 프로비우스는 프로토스 종족 일꾼 유닛인 탐사

정이다. 양증맞은 모습으로 국내 커뮤니티로부터 ‘프로비’, ‘탐사돌이’ 등 다양한 애칭으로 불리며 인기 영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디아블로3는 지난해 블리즈컨에서 공개해 크게 주목을 받았던 신규 영웅 강령술사의 추가 정보를 최근 공개했다. 여성 강령술사의 모습과 함께 베일에 가려져 있던 근접 기술을 공개해 기대감을 높였다. 디아블로2의 네크로맨서를 새롭게 재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강령술사는 올 하반기 정식 선보일 예정이다.

블리자드는 또 이달 31일로 출시 19주년을 맞는 스타크래프트를 사랑해 준 한국 팬들에 감사를 표하고 축하하기 위한 행사 ‘아이 러브 스타크래프트’를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오랜 역사와 추억들을 돌아보고 전설적인 플레이어들의 이벤트 매치가 열린다. 또 스타크래프트2 챔피언십 결승전까지 이어져 많은 팬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신규 콘텐츠와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뉴스디자인 | 신하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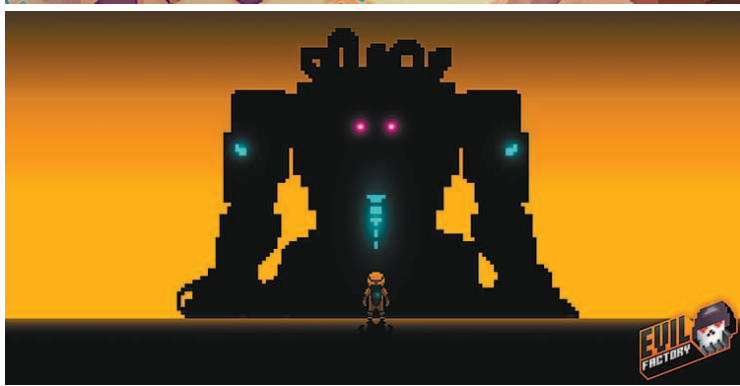
BRIDGESTONE INVITATIONAL



SONIO 석교상사

주식회사 석교상사는 일본 브리지스톤 스포츠의 한국 공식 파트너입니다. (서울) 02-558-2235 (부산) 051-746-5728 | www.bsport.co.kr

BRIDGESTONE GOLF



넥슨의 모바일게임이 독특한 소재로 인기가 높다. '애프터 디 엔드' (위)는 출시 직후 유저들에게 '착한 게임'이라 불리고, '이블팩토리'는 80년대 오락실게임을 재현해 주목받고 있다.

사진제공 | 넥슨

자동차냥·확률형아이템·TV광고 없는 3無 게임

넥슨의 시도, 새로운 바람이 분다

‘애프터 디 엔드’ 착한게임 돌풍의 주역 ‘이블팩토리’ 오락실게임세대 향수 자극 부분 유료화 벗어난 비즈니스모델 시도

넥슨이 독특한 소재의 모바일게임을 잇따라 출시해 글로벌 시장에서 전진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주인공은 ‘이블팩토리’와 ‘애프터 디 엔드’다. 무엇보다 인기 모바일게임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은 ‘자동차냥’과 ‘확률형 아이템’, ‘TV 광고’ 없이도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또 이들 게임은 실험 정신이 높은 5명 남짓의 소규모 개발팀들이 다양한 시도 끝에 탄생시킨 이단아들로 성공적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유료 모바일게임 애프터 디 엔드는 독특한 세계관, 감성적 사운드와 그래픽으로 출시 3일만에 앱스토어 유료 게임 부문 1위를 달성했다. 10개 국가에서 iOS 유료게임 앱 1위를 기록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냈다. 또 2D 픽셀 오락실풍 게임인 이블팩토리는 출시 6일 만에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수 100만을 돌파했다. 앱스토어 및 구글플레이에서도 평균 4.5점대의 평점을 받으며 게임성을 인정받았다.

애프터 디 엔드는 넥슨이 페이지 게임사 중 최초로 새롭게 시도한 유료 모바일게임이다. 국내 마켓에서 4600원에 구매 가능하며 추가 결제 없이 유저가 원하는 대로 ‘엔딩’이 있는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출시 직후 유저들은 ‘착한’ 게임이라 부르기도 했다. 게임은 좌·우, 앞·뒤 그리고 위·아래까지 곳곳에 배치된 길과 숨겨진 요소를 통해 그 지형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나서는 것이 핵심이다. 전투적 액션 요소보다는 퍼즐과 관련된 두뇌싸움, 3D 공간 곳곳에 숨겨진 힌트들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관찰, 그리고 적당한 조작 능력을 발휘해 함정들을 헤쳐 나가야 한다.

이블팩토리 역시 게임 내 과금요소라고는 무기를 강화하는 소재 뿐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게임 진행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은 게임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3000원을 한 번만 결제하면 무한대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이 게임은 특히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80년대 오락실 게임을 재현한 독특한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팩맨’, ‘보급보급’ 등 오락실게임이 사용한 픽셀 그래픽을 바탕으로 모든 전투가 세로형 진행방식의 1:1 보스전만으로 구성된 게임을 만들었다.

한편 넥슨은 최근 모바일게임 외에도 복미 개발사 ‘보스키 프로덕션’에서 개발 중인 PC온라인 일인칭슈팅(FPS)게임 ‘로브라이커즈’를 북미 지역에서 패키지 형식(가격 미정)으로 출시한다고 예고했다. 2001년 최초로 온라인게임에 부분유료화 모델을 도입한 이후 시장을 주도해 온 넥슨이 비즈니스모델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게임 시장과 글로벌 게임사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속 성장하기 위해 ‘게임의 본질’만 남기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의지라는 설명이다. 넥슨 관계원 홍보실장은 “넥슨은 지금까지 도전을 장려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지속 성장해왔다”며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인 호흡으로 새로운 시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